

상상력의 낭만주의자 가스통 바슐라르

「공기와 꿈」 마지막으로 문학분야 핵심 저작 거의 모두 번역 소개

최근에 바슐라르의 「공기와 꿈」(정영란 역, 민음사)이 번역됨으로써 문학상상력에 대한 그의 '핵심저작'들이 모두 우리말로 옮겨졌다. 그리고 「대지와 휴식의 몽상」만 마저 옮겨지면 문학상상력에 대한 바슐라르의 8권의 저서가 완역되는 셈이다. 이를 계기로 바슐라르의 저작들과 우리나라에서의 '수용史'를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문학상상력 관련저작 완역 초읽기 들어가

바슐라르는 78년간의 생애 동안(1884~1962) 25권의 저서를 남겼다. 과학철학자로 학문인생을 출발한 그는 최초의 저서인 「近似的 인식에 관한 試論」(1928)을 시작으로 「과학인식론」에 해당하는 책을 14권 펴냈으며, 1938년 「불의 정신분석」을 발표함으로써 「과학에서 시로」 행보를 옮겨 11권의 책을 썼다. 11권 중 세 권은 「로트레아몽」(1940), 「풍경」(1950), 「스페인의 城」(1956) 등 예술가의 상상세계를 깊숙이 파헤친 '작가론'이며 나머지가 바로 문학상상력에 대한 책들.

사실상 과학철학자인 그가 문헌연구 쪽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강행한 것은 "과학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인간의 상상력의 집요한 활동을 깨달은 데 연유"한다(광광수, 「자유로운 상상력의 독자성」, 「문학사상」 93년 7월호). 실증적 과학이 시작되기 전의 과학자들은 모두 과학적 지식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기실 상상력이 투사하는 이미지들을 묘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전회'를 알리는 첫번째 저작인 「불의 정신분석」(민희식 역, 삼성출판사, 1982)은 따라서 "그의 상상력연구의 특징을 계서적으로 드러낸 주춧돌 같은 책"이다. 이 책에서 시작된 그의 "물질적 상상력"에 대한 연구는 불·물·공기·흙 등 4원소에 대한 독자적인 "상상력의 형이상학"을 펼친 '4부작'으로 이어진다. 「물과 꿈—물질의 상상력에 관한 시론(1942)」(이가람 역, 문예출판사, 1980), 「공기와 꿈—운동의 상상력에 관한 시론(1943)」(정영란 역, 민음사, 1993), 「대지와 의지의 몽상—힘의 상상력에 관한 시론(1948)」(민희식 역, 삼성출판사, 1982), 「대지와 휴식의 몽상—내밀성의 아마주에 관한 시론(1948)」(미번역)이 그들이다. 「물과 꿈」은 "바슐라르가 발견해 낸 물질적 상상력이라는 독창적 개념이 가장 뚜렷이 드러난 책"이다. 「공기와 꿈」은 "질료에 대한 상상력 연구에서 운

동에 관한 상상적 연구를 거쳐 문학상상력의 현상학으로 요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금근는 저작"이다.

저자 스스로 "이미지의 현상학을 행한다"고 천명한 「공간의 시학(1957)」(광광수 역, 민음사, 1990)은 그리하여 "이미지의 현상학이라는 비평방법론"을 보여줌으로써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 체계에 또한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거니와 "문학에 대한 그의 대표저작"이라고 일컬어진다. 바슐라르의 문학상상력에 관한 전 저작들을 통해 '상상력의 독자성' 내지 '절대적 창조성'이 한결같이 표명되지만, 가장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표명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이 책에서 선택된 논증이 바로 "시적 교감"의 현상을 통한 것이라고 역자는 말한다. "시인이 제공하는 말의 행복, 시인의 생애의 드라마마져 뛰어넘는 그 말의 행복을 위해 시인의 괴로움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는 구절만으로도 진즉 유명했던 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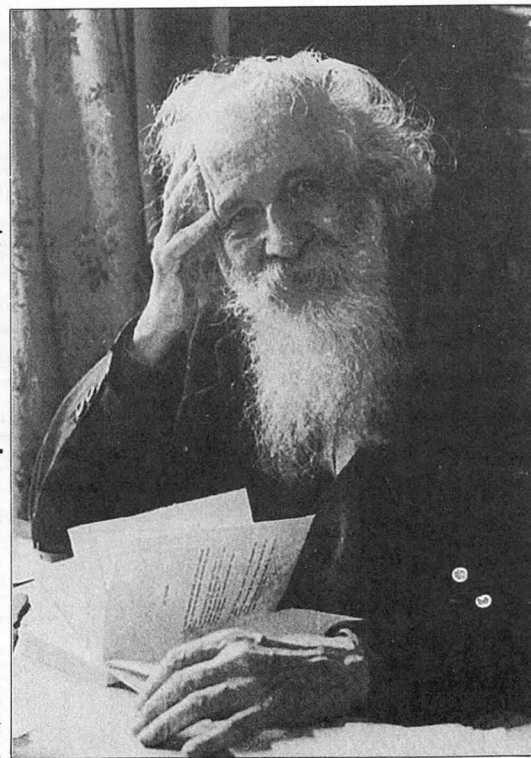
그 「공간의 시학」은 「몽상의 시학(1960)」(김현 역, 기린원, 1978)과 「춧불의 미학(1961)」(이가람 역, 문예출판사, 1975)과 더불어 "만년의 3부작"으로 불린다. 이 삼부작은 바슐라르의 문학사상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혼의 울림"에 대해 천착한다. 즉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깊은 심리적인 효과, 달리 말해 독자체험의 영혼적인 깊이를 드러낸다. "울림은 존재의 전환을 이룩한다"는 것.

70년대 중반이후 바슐라르연구 활발해져

1962년 10월 16일, 바슐라르가 죽은 날, 그 날 신문을 받아본 그의 고향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서서 묵념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풍문으로만 떠들던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활자화된 것은 그의 부음을 알렸던 「경향신문」 문화면을 통해서였다. 60년대 중반부터 그의 이론이 파편적으로 소개되다가 69년에 이르러 비로소 그에 관한 논문 두 편이 발표됐다. 송옥 역 「문학평전」(일조각)에 수록된 「바슐라르의 시학과 물질적 상상력」과 「월간문학」 69년 9월호에 실린 민희식 교수의 「가스통 바슐라르와 상상력」이 그것이다. (이상 「프랑스문학 연구문헌 색인집」과 「한국 불문학 번역 및 연구 서지」 참조)

그 이후 불문학자 김현씨와 광광수씨, 국문학계에서는 한계전씨(현재 서울대 국문과 교

몽상의 철학자, 상상력의 낭만주의자로 불리는 가스통 바슐라르는 '상상력 이론' 문학비평론으로 작품은 작가의 삶의 복제품이라는 실증주의 비평을 전복시킨 문학자이다. 또한 '능동적 이성주의'를 주장, 과학적 진리가 객관적이라는 당시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부정한 과학철학자이기도 하다.



몽상적 상상력의 낭만주의자 가스통 바슐라르.

수)에 의해 깊이있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번역서는 「춧불의 미학」(이가람 역, 문예출판사, 1975). 최초의 연구서는 「바슐라르 연구」(광광수·김현 공저, 민음사, 1976)로서 아직까지도 유일무이한 바슐라르 연구서로 남아 있으나, 이달 말경 광광수 교수의 「바슐라르 연구」(가계)가 민음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이들에 의해 점화된 바슐라르에 대한 소개와 연구는 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시장작과 평론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번역이 채 이뤄지기 전부터 활발해진 바슐라르의 인용은 몇몇 연구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독에서 야기된 오용"의 수준이었다고 한 전공자는 평가한다.

과학철학 작가론 분야 책들도 이미 소개돼

한편 바슐라르의 과학철학자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책들과 '작가론'에 해당하는 책들은 현재까지 5종이 번역되었다. 도서출판 인간사랑이 제작년에 펴낸 「새로운 과학정신(1934)」과 그것의 후편에 속하는 「부정의 철학(1940)」은 일종의 「과학철학 입문서」로서 「과학적 지식이 곧 객관적 지식임을 부인하며, 과학적 지식은 단지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무한한 노력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바슐라르의 '작가론' 중에서는 「로트레아

몽(1940)(윤인선 역, 청하, 1985), 「풍경(1950)」(이가람 역, 열화당, 1983), 「꿈꿀 권리(1970)」(이가람 역, 열화당, 1980) 등이 있다. 「로트레아몽」은 로트레아몽의 시집 「말도 로르의 노래」를 분석한 내용으로 우리의 정신에 내재한 공격성의 현상학을 다룬다. 「풍경」은 알베르 플로공의 관화에 대한 노트. 우주적 명상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는 관화, 즉 관화로 새겨놓은 플로공의 철학과 그 관화를 철학적으로 몽상하는 저자의 글이 어우러진다. 바슐라르 사후 10여년이 지나 출판된 文選인 「꿈꿀 권리」는 모네·샤갈·세갈·바로기에·칠리다·꼬르티·마르쿠시스·플로공을 통해 펼쳐 나가는 바슐라르의 미술론. "에로틱하다할 정도의 애정과 겸허한 경탄으로써 예술가와 그 작품에 대한 심층적 정신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슐라르의 영향과 수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바슐라르를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은 「상상력을 위한 교육학」(김용선 저, 인간사랑)은 많은 시사를 던진다. 비단 문학과 과학철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김중식 기자